

100퍼센트 리얼 스토리

speed & angels

A TRUE STORY

항공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어릴 적 추억이나 감명 깊게 본 항공영화가 하나쯤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들 뇌리에는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TOP GUN)이라는 영화가 강한 인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배우들이 만들어 낸 허구일 뿐, 실제 F-14 전투기의 공중전을 통해 조종사들의 생활과 애환을 다룬 작품은 따로 존재한다.



영화보다 다큐!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을 우리는 다큐멘터리라 칭한다.

일반 영화는 각본에 의해 배우가 만들어 낸 이야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허구일 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된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다르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며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사람들은 더욱 흥미를 갖게 되는지 모른다.

감독 페이톤 윌슨(Peyton Wilson), 그는 2003년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세계에 흠뻑 빠져 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전례 없는 미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전 어떤 전투기의 공중전 장면보다도 가장 사실적이고 친밀한 장면을 잡아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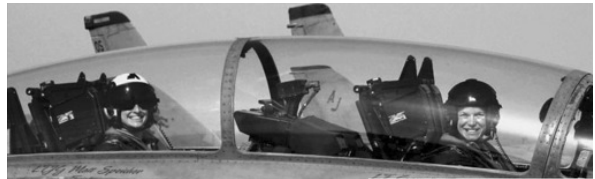
고공의 서사시로 정의될 만한 고공 촬영과 조종석 안에서의 장면들은 항공마니아들이 꿈꾸던 드라마틱한 공중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다.

감독 페이톤은 열정적인 2명의 젊은 미 해군 장교 제이(Jay)와 메건(Meagan)을 따라 그들의 어린 시절 꿈이었던 F-14 Tomcat 조종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낸다. 감독은 그들 2명과 반년동안 여정을 같이 하면서 주로 네바다 사막 상공에서 공중전을 촬영하게 되었다. 밤에는 항공모함 착륙 장면을 찍기도 하였으며, 한 때는 두 조종사가 촬영기간 중 실제로 이라크 전에 투입되는 큰 임무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렇듯 영화는 제이와 메건이 어릴 적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실제 전투상황에 직면하는 그들의 삶과 조종사들의 사실적인 전투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

영화 Speed & Angels의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듀서 F.A. Chiericci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페이톤 윌슨이 액션 다큐멘터리로서 총 지휘를 맡았다.

현재 이 영화는 국내에는 미 개봉작으로 전혀 소개된 적이 없는 다큐멘터리 영화이지만 사실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하기에 충분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JAY 제이

Callsign: Faceshot



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를 비행기에 태워 주었는데 그날이 바로 그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다. 그는 이미 23세 때 그의 2번째 삶을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파티장에서 어느 해병대원에게 총상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의사의 진단은 총알이 그를 죽일 만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몇 달 후 미 해군 사관학교에 나타났다. 그는 당시 비행에 대한 욕망을 불태우고 있었다. 오직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기 위한 욕망을 불태웠으며 그의 비행에 대한 꿈은 죽음을 불사할 정도였다.

MEAGAN 메건

Callsign: Slick



그녀는 F-14 전투기에 올라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24세의 보통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12세 때 영화 'TOP GUN'을 아버지와 같이 보고는 "난 빠른 속도를 원해"라며 조종사가 되기를 결심한다. "아빠 나 매버릭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하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종사의 길을 택했다. 그녀는 2명의 평화주의자인 언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한다. 그녀는 역사를 만들고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조종사의 세계에서 여자로서 당당히 선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Callsign: Bucket



그는 미 해군의 Saints'(해군 가상 적 훈련 부대:naval adversary training squad)라는 지휘 통제부 대령이다. 그는 해군에서 25년 동안 조종사로서 복무를 통해 다양한 비행 상황을 경험해 왔다. 그의 오랜 경험은 메건과 제이가 조종사로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Callsign: Jugs



제이의 룸메이트이며 그의 절친한 친구 중 하나인 그는 경험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대등한 수준으로 필적할 만한 친구이다. 그들은 서로 가깝게 자람에도 불구하고 함대에서는 전혀 다른 임무를 할당 받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군가가 대신해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Callsign: Coochie



그는 해군의 가상 적 훈련 부대의 교관이면서 전문 비행사이기도 하며 영화에서는 메건(Meagan)과 도그 파이팅(고리잡기 비행)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메건의 교육 중 그는 작곡가 모짜르트를 생각하며 도그 파이팅이 어떻게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Callsign: Rocko



제이의 좋은 친구로, 그들은 공중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절친한 조종사 입장에서 같이 이해하는 동료로 활동한다.

Callsign: Squeaky



그녀는 R.I.O (레이더 요격 통제관:radar intercept officer) 교관으로 여성 해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확히 메건에게 가르쳐 준다. 메건이 그녀의 비행기를 항공모함에 착륙시키려 하는 동안 드물게도 갑판은 거의 여자 F-14 비행 승무원들로 이루어지고 했다. Meagan은 마지막 비행 허가를 위해 현명한 충고를 참고삼아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여자 조종사를 위해 특별히 강도 높게 훈련이 이루어진다.

Callsign: Koko



메건의 부대 구성원으로서 그는 메건의 교육을 관찰하고 그녀와 의견을 나눈다. 부대 내에서 여자 조종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녀의 동료이기도 하다.

Callsign: Demo



항상 R.I.O 선임인 그는 항상 초급 조종사와 임무를 위해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그들은 자리에 앉아 전투 장면을 보면서 왜 그런 데모가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데모비행 시 합리적인 목소리로 팀의 위기 순간에 그들의 눈과 귀가 되었다.

Callsign: Spur



메건의 절친한 친구로서 부대 복무 기간 중 그녀의 선임 RIO역할을 하고 있다. F-18 Hornet 비행을 통해 그녀는 메건의 전문가적인 경험과 도전에 대해 이해하게 된 사람 중 하나가 된다.